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음 2월 9일)

제17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올 상반기 전주동물원 뱀갈호랑이 폐사만 두번째

동물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올해 상반기에 전북 전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뱀갈호랑이 두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동물원 측의 관리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수컷 호랑이가 전날 오후 7시10분께 숨졌다. 시는 부검결과 혈액 내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되는 악성 용혈성빈혈로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호랑이 평균 수명은 15년이다. 이 호랑이는 지난 2월6일부터 최근까지 설사와 혈뇨를 비롯해 먹이 섭취와 기립이 힘들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다.

시는 이 호랑이를 전문 의료계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소각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 이 동물원에서 13년 된 뱀갈호랑이 한 마리가 신장기능 저하로 숨졌다.

이로 인해 전주동물원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5마리와 뱀갈호랑이 1마리 등 총 6마리가 남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수컷 기린 한 마리가 무릎 관절염 악화로 죽었고, 같은해 3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맨드린은 기록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전립선비대증과 췌

혈액 내 적혈구 파괴 악성 용혈성빈혈로 폐사

수의료체계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동물원 "동물 종에 비해 수의사·사육사 태부족"



장 출혈로 폐사했다.

이처럼 대형 포유류가 연달아 폐사하면서 동물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은 103종 613마리. 이에 비해 수의사는 3명, 사육사는 14명에 불과하다.

전주동물원은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 최소 2차례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먹이 섭취량, 배설물 상태, 운동량 등을 통해 동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원내에 동물병원을 신축해 운영해왔지만, 이번 대형 포유류들의 잇따른 폐사로 전주동물원의 의료체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 수뿐 아니라 종에 비해 수의사와 사육사가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수의사 한명을 더 충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좁은 우리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 같다"라며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동물들의 복지 여건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봄 기운에 움튼 청보리 새싹...



7일 성금 다가온 봄과 함께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 청보리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도 R&D연계 기술애로 지원 '결실 맺었다'

솔토씨엔에프, '로보카폴리' 활용한 입욕제품 개발

지난해 대만·베트남에 수출 수익 10만달러 달성

올해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에 입점 계약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솔토씨엔에프는 전북도 R&D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의 시작 금형 지원을 받아 한류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활용한 입욕제품을 개발해 성공창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 R&D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시제품·시작금형 제작 및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보카폴리는 전세계 128개국에서 수출병영 되고 있는 한류 문화 애니메이션이며, 4~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기와 교육 효과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이다.

(주)솔토씨엔에프는 로보카폴리의 제작사 로이비주얼로부터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을 확보해 캐릭터 폴리와 엠버의 모양을 딴 입욕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목욕할 때 욕실에서 가지고 놀 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며, 간접적으로 아이를 매일 씻겨야 하는 입점의 부모

들이 더 많이 좋아한다.

(주)솔토씨엔에프의 조명록 대표는 "신흥중·동양고·군산대를 거친 전주 토박이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24세에 휴학 후 2014년 10월에 창업을 한 젊은 기업인이다."

창업 후 전북도의 R&D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로보카폴리의 금형을 제작해 2015년도에 3억 6,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대만·베트남에 수출해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올해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갤러리아의 4대 면세점에 모두 입점 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주)솔토씨엔에프는 라이선싱을 활용해 OEM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해외 수출까지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영세·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큰 규모의 지원사업으로의 참여가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최순실,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재판부에 제청 요청

법원 제청 거부시 재판 계속 진행

최순실(61)씨 측이 '특검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자신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7일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와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는 신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 최씨 측은 개별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뉴시스

현재, '박근혜 탄핵 선고기일' 오늘 이후로 결정

"선고기일 관련 내용 알릴 것 없어" ...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당초 예상과 달리 8일 이후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남짓 진행했다"면서도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언제 선고할지를 논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그동안 주로 오전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오후에 평의를 열

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게 표면상 이유지만, 현재 안팎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한 시간 남짓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현재 안팎에서는 선고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현재는 8일 평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8일 이뤄질 평의와 관

련해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오전, 오후 언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만 말했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에 비춰볼 때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혀왔다. 현재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8일 공개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시일이 더 늦춰져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남원시
춘향제
4~5월

남원시
철쭉제
(4~5월)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3~5월)

남원시
요진번 벚꽃
(4월)

남원시
요진자전거길
(5월)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